# 완도군,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국가계획 반영 총력

##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추진 방안 모색 토론회

완도군은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해남·완도 경유 제주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관련 분야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제주 고속철도(연장 178.8km)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27조 4천억 원이 투입될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이다.

「서울~해남·완도 경유 제주 고속철도 유치 국회 토론회」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을 주축으로 민홍철, 민병덕, 민형배, 허종식, 손명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완도군과 해남군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 대표,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 김윤덕 국토부장관 등이 서면 축사를 보내 토론회 개최에 관심을 표했다.

토론회는 서울~제주 고속철도가 해남·완도를 경유하여 제주까지 연장해야 하는 필요성 및 당위성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국가 계획 반영 등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지원 국회의원의 개회사, 신우철 완도군수와 명현관 해남군수의 환영사, 국회의원들의 축사로 시작하여 주제 발표와 관련 분야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제주 고속철도는 해남, 완도에 국한되지 않고 진도와 영암, 무안 등 전남 서남부권은 물론 대한민국 도약의 새로운 마중물이 될 것이다"면서 "목포에서 영암, 해남, 완도까지 1단계 구간만이라도 우선 추진해 국가 균형 발전의 큰 그림을 뒷받침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 지역을 지나는 고속철도가 놓이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 인적·물적 교류 확대로 인구 유입, 지역 산업과 관광, 경제 등에 활력이 돌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특히 우리나라 대표 웰니스 관광도시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 방문객이 유입되면 글로벌 도시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철도 건설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서울~해남·완도 경유 제주 고속철도 국가 계획 반영'을 주제로 한 주제 발표에서 ▲한반도 서부 축의 고속 교통망 구축 ▲항공·여객 운송 사고의 위험성 ▲기상 요인으로 인한 항공 운송의 신뢰도 저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수의 교통 수단 구축 등을 제시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 2026 새해 해맞이로 문 여는 고흥의 금빛 새벽

### 군민과 관광객 모두의 소망·행복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남열해돋이해수욕장에서 '2026 고흥 남열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흥의 금빛 새벽, 모두의 소망을 채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과 관광객 등 5,000여 명이 함께 새해 첫 해를 맞으며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된다.

행사는 떡국과 유자차 나눔, 새해 소망 메시지 달기 등 참여형 부대행사로 시작해 고흥군 전속예술단의 대북 공연과 신년 록밴드 공연이 이어진다. 이후 신년 메시지 전달과 함께 새해를 여는 불꽃 쇼와 해맞이 카운트다운을 통해 2026년 첫 일출(07시 36분 예정)을 함께 감상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할 계획이다.

또한 고흥 특산물인 유자를 활용한 유자차 제공과 따뜻한 떡국 나눔을 통해 겨울 새벽 행사에 참여한 방문객들의 몸과 마음을 녹이고, 고흥만의 정겨운 새해맞이 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고흥군은 이번 행사가 남열해돋이해수욕장을 대한민국 대표 해맞이 명소로 브랜드화하고, 해맞이 사진 촬영과 누리소통망(SNS) 공유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소방·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으며, 특히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주차요원 50여 명을 배치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주변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광정책실 관계자는 "2026년 새해를 여는 첫 순간을 함께하며 모두의 소망과 행복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간소하지만, 품격 있는 행사로 고흥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 나주시, 출생기본소득·출생육아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

###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양육 지원과 지역경제 동시 강화

전라남도 나주시가 출생기본소득과 출산육아지원금 등 주요 출생 지원금을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출생 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선순환 경제 구조 마련에 나선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18일 내년부터 출생기본소득과 출산장려금 증액분을 포함한 출생 지원금을 지역화폐인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출생기본수당'은 내년부터 '출생기본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이는 출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걸쳐 기본적인 소득을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를 보다 분명히 반영하려는 조치다. 출생기본소득은 전라남도 내 출생아를 대상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출생아 1명당 총 43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며 출생아와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출생아가 1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점에는 출생아와 모든 보호자가 전라남도에 거주해야 한다.

출생기본소득은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각각 10만 원씩 분담해 출생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는데 나주시가 부담하는 월 10만 원은 내년부터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나주시는 출산장려금 확대 정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기존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 300만 원이던 출산장려금은 2023년 7월부터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나주/이명열 기자

## 곡성군,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위원회 출범, 첫 회의 가져

### 외국인 관련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 수립 방향 등 논의

전남 곡성군은 지난 17일 군청 소통마루에서'제1회 곡성군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위원회'(이하 시책위원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책위원회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방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시책 수립 등 자문기구로 지난 11월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곡성군 정창모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외국인 관련 부서장, 곡성교육지원청, 곡성경찰서, 전남과학대, 관내 기업대표, 가족센터, 농협, 전남동부이민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 관련 민관산학 관계자 16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들은 외국인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 선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곡성군 등록외국인 현황 및 기관별 외국인 관련 추진사업 28건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 추진해야 할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위원회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외국인 정책에 반영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주민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정창모 부군수는, "외국인 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중요한 시점에서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위원회를 열게 됐다"라며, "외국인 주민이 군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유관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 영광군, 1회 방문으로 여권 신청부터 수령까지 OK

###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여권 무료 등기 배송 서비스' 시행

영광군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민원취약계층 대상으로 여권 무료 등기 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서비스는 여권 수령을 위해 군청 민원실을 재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취약계층의 여권 발급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2025년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여권 무료 등기 배송 서비스는 71세 이상 어르신,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장애인, 임산부, 수급자 등 민원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여권 발급 신청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여권을 무료로 등기 배송해 주는 방식으로, 여권 수령을 위해 민원실을 재방문하는 절차 없이 자택에서 편하게 여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광군은 평일 근무시간 내 여권 발급이 어려운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월요일 야간 여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야간 여권 민원실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평일 주간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도 여권 접수 및 교부 등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여권 무료 등기 배송 서비스는 민원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으로 군민들의 생활 편의와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 광양시, 시민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홍보 교육 실시

### 신종 사기범죄 대응력 강화 및 범죄 피해 예방 기대

광양시는 최근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사칭 범죄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18일 시청 시민홀에서 시민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홍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민들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마동권과 광양읍권으로 나눠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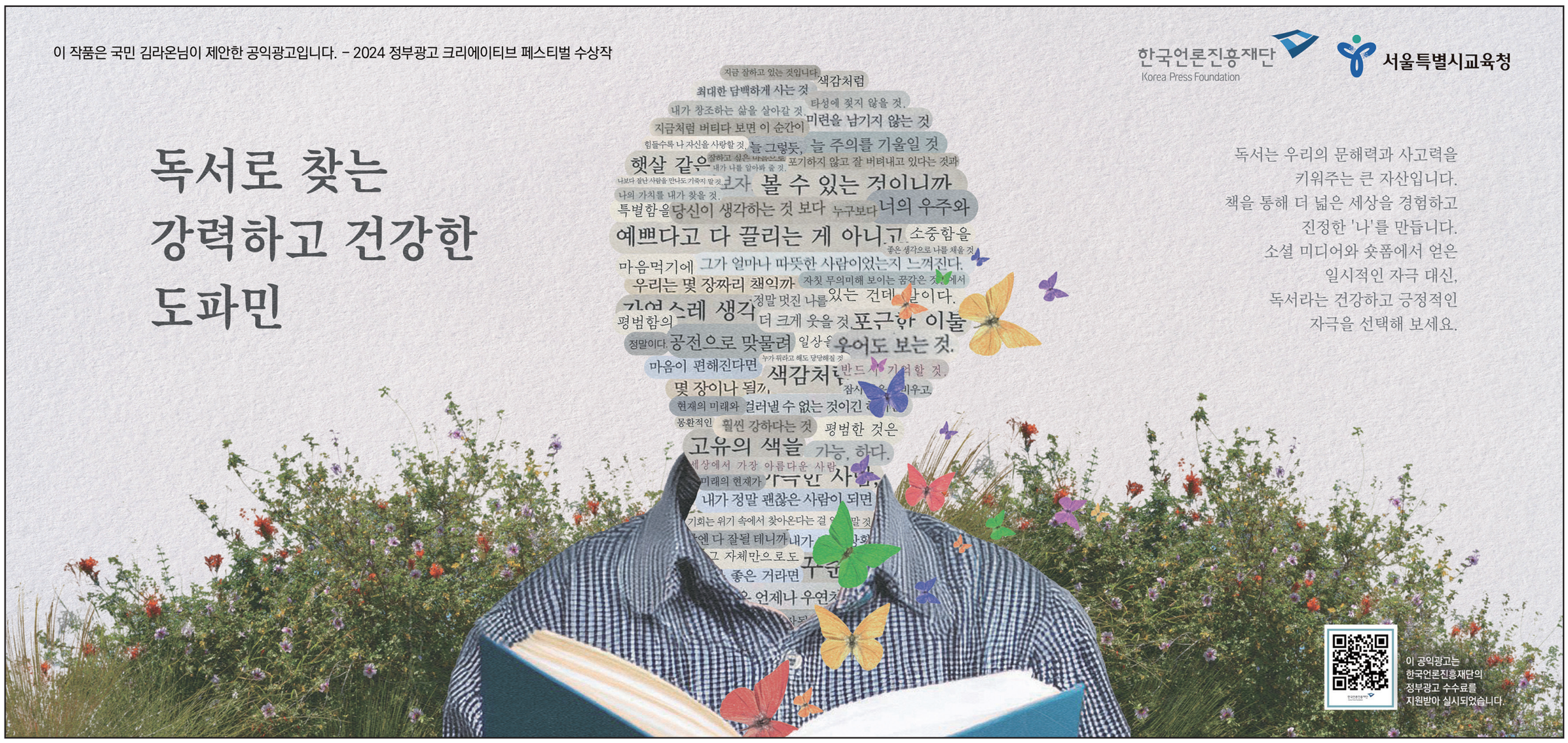
중마동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1차 교육은 △보이스피싱 탐지력 테스트 △유형별 주요 사기 수법 안내 △실제 피해사례 영상 시청 △상황별 대응 요령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최신 사기 수법을 실제 피해 영상을 통해 설명하는 사례 중심 교육으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일상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법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시민은 "막연히 알고 있던 보이스피싱 수법을 실제 사례로 보니 훨씬 실감이 났다"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돼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연령과 직업을 불문하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라며 "이번 교육이 어르신 등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은 물론 소상공인과 일반 시민 모두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광양시청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나 공문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시청 공식 대표전화나 해당 부서로 확인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차 광양읍권 교육은 12월 23일(화) 오후 3시 30분, 광양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